

The working class supports the national independence/defense of the fatherland of the (semi-)colonial and oppressed peoples.

- But in the imperialist country, "national independence"/"defense of the fatherland" is a reactionary slogan!

노동자계급은 식민지·피억압민족의 민족자주/조국방어를 지지한다.

- 그러나 제국주의 나라에서 “민족자주”/“조국방어”는 반동일 뿐이다!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남한 같은 제국주의 나라에서 노동자계급이 결코 “조국”을 옹호·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강령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근본적인 반대를 담고 있다. 이 강령은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트·피억압자와 다른 한편으로 제국주의 지배계급 간에 그 어떤 공통의 이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맑스주의 강령과 계급투쟁의 일반적 방법들을 반배외주의·반군사주의 투쟁의 지형에 적용한 것에 다를 아니다. 패전주의 강령은 노동자계급이 그 본성 상 국제적 계급이라는 공리에 기초해 있다. 이 점은 이미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847년에 <<공산당 선언>>에서 정식화 한 바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들이 갖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는 없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우선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하여 민족적 계급으로 올라서야 하며 스스로 민족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그 스스로 민족적이다. 비록 부르주아지가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이 발언은 많은 항의와 혼동을 야기했다. 우익 배외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조국 없는 자들”이라고 비방하기 위해 이 말을 이용했다. 기회주의적 사민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은 이러한 반동적 편견을 내면화하여 부르주아 “여론”에 자신들은 맑스주의자들과는 다르다는, 즉 제국주의 조국의 충성스런 옹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열심이었다.

과학적 사회주의 창시자들의 말을 또 다른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는 비판자들도 있다. 그들은 <<공산당 선언>>으로부터,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따라서 민족적 억압에 대항하여 인민들을 방어하길 거부한다고 추론한다.

그 같은 왜곡된 해석보다 더 진실과 대립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역사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선언>>을 쓰고 그것을 유럽 대륙에 전파하고 있던 바로 같은 시간에 그들은 폴란드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를 말과 행동으로 규합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실제로 폴란드 자주/독립의 대의는 1864년에 제1 인터내셔널의 창설을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같은 맥락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독일의 민족 통일을 지지했고 차르 러시아에 대항하여 독일의 혁명적 전쟁을 요구했으며 합스부르크 제국에 대항하여 이탈리아 인민의 편에 섰다. 나중에

그들은 영국의 점령에 반대하여 싸우는 아일랜드 인이나 인도인 같은 피억압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그들의 무조건적 지지를 계속 이어갔다.

언뜻 볼 때 이것은 모순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형식주의적이고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만 그렇게 보인다. 국제주의와 민족 문제에 관한 맑스주의적 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해보자.

맑스와 엥겔스가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노동자계급은 그들이 속한 특정 나라에 대한 어떠한 “천부적” 충성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노동자들에게 이 또는 저 외국의 노동자들은 같은 나라 출신의 동료들만큼이나 가깝다.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관계는 그가 고용되어 있는 회사와의 관계와 비슷하다. 노동자는 다른 회사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자신이 속한 회사의 노동자에 대해서만큼이나 동일한 연대 의식을 가질 것이다. 노동자 연대와 노동조합이라는 사상 전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적 본성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 통찰 위에서 쌓아올려진 것이다.

국경, 주민증, 피부색과 관련한 노동자 연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또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노동자에 대해서도 자신이 속한 나라에 살고 있는 노동자, 또는 거기서 태어난 노동자, 또는 같은 피부색을 가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애착을 느낀다.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국적이거나 피부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일한 우리의 존재 조건, 즉 자본가들과 그들의 국가기구에 의한 동일한 착취·억압 조건을 맞고 있는 계급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다. 국적이거나 피부색에 기초한, 계급을 가로지르는 정체성은 지배계급과 그들의 매체와 그들의 정치적 전도사들에 의한 조작의 결과다. 여권이나 피부색에 관계없는 계급 정체성만이 프롤레타리아트와 피억압자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국제주의와 민족해방

그러면 왜 맑스와 엥겔스는 다양한 민족 투쟁들을 지지했고, 왜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의 근절을 위해 싸우기 때문이다. 민족 억압은 이 또는 저 나라의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억압 형태다.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들이 그러한 민족 억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그러나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들은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억압에 반대한다. 이것은 계급적 각성을 이룬 노동자들이 모든 피억압 인민의 민족적 평등을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피억압 인민이 같은 나라에 살든 다른 나라에 살든, 그들의 피부색이 같은 다른 관계없이 말이다. 우리가 민족 억압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은 어떠한 억압도 없어야만 인류에게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 우리가 해당 피억압 인민과 같은 국적이거나 같은 피부색을 가져서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이며, 또한 우리가 노동자계급은 본질적으로 국제적 계급이라고 말한 것의 의미다.

이러한 근본적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인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혁명적 패전주의 전술이다. A사(社)에서 일하는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는 그의 사장이 경제적 경쟁에서 라이벌 B사를 누르려고 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 A사의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들은 B사에 고용된 그들의 동료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끼리 싸움시키는 것을 막아내고 양사 사장들에 대항해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말이다.

같은 식으로,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인력에 합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동료 노동자의 배외주의적 입장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리고 또 계급적으로 자각한 남성 노동자는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반대도 거절할 것이고, 계급적으로 자각한 중장년층 노동자는 젊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반대도 거절할 것이다. 일체의 반동적 배외주의와 후진적 길드주의에 대한 이러한 반대는 언제나 맑스·엥겔스 시대의 제1 인터내셔널 이래 노동자운동의 기본 원칙이었고 오늘날까지 그러하다.

또한 자본가 국가는 철저히 외계체로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을 방어하지 않으며, 오히려 파괴되어야 하고 노동자·빈농 평의회와 민병에 기초한 새로운 코뮌 형 국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혁명적 노동자운동의 당연한 공리였다. 레닌은 이 원칙을 이렇게 옹호했다. “제국주의 — 은행자본의 시대, 거대 자본주의 독점체들의 시대,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발전의 시대 — 는 군주제 나라들에서나, 가장 자유로운 공화제 나라들에서나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 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구”의 미증유의 강화 및 군사·관료 기구의 전례 없는 성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바로 이 때문에 언제나 맑스주의자들은, 국가를 개혁할 수 있고 자본주의를 폭력 없이 변혁시킬 수 있다는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의 백일몽을 거부해 왔다.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부르주아 국가를 대체하는 것은 폭력 혁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에서 밝혔듯이, 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사장과 아무 공통의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동자계급도 한 자본가 국가의 지배계급과 아무 공통의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오너를 약화시키고 패배시키고 마침내 몰수 수탈하길 원하는 것처럼, 한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들도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패배시키고 마침내 타도하길 바란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계급적 적이 연루된 모든 충돌·분쟁을,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자신의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타도, 수탈하고 사회주의 국가와 경제를 만들어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조국이나 자신의 기업을 충심으로 방어할 것이다. 오직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 자신의 나라를 향한 애국주의는 정당화되고 진보성을 갖는다.

제국주의 열강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식민지/반식민지 나라의 노동자계급, 또는 외국의 점령이나 반동 독재에 대항하여 싸우는 피억압 인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경우에 조국 방어는 정당하다.